



“연합뉴스 사장이 이런 사람이었어?”

노조, 평창 월드옥타 행사장서 원정투쟁

연합뉴스 노조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정찬 사장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듣고자 일명 ‘평창 원정투쟁팀’을 긴급히 꾸려 25일 강원도 평창으로 급파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원정투쟁팀에 별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고, 원정투쟁팀은 현지에서 선전전을 벌인 뒤 복귀했다.

원정투쟁팀 16명은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를 뚫고 왕복거리 500km에 달하는 평창으로 이동했다. 이곳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월드옥타 대회 개최식에 박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명권 사진부 조합원은 현장의 기록을 남기려고 홀로 차량을 몰고 일찌감치 출발, 오후 4시30분부터 리조트에서 대기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 5시께 도착한 원정투쟁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행사장으로 올라가는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늘어선 피켓팅을 벌였다. 이날 원정투쟁이 들고 간 피켓은 조합원들이 제작한 것 중 우수한 작품을 엄선했다는 후문이다.



박 사장은 개회식 시작 30분 전인 오후 5시30분께 도착, 원정투쟁팀을 힐끗 쳐다보고는 1층에 마련된 VIP 대기실로 갔다. 원정투쟁팀은 박 사장을 향해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언론 바로선다’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후 원정투쟁팀은 개회식 전까지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개회식에 참석하려고 다시 나온 박 사장은 내외빈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원정투쟁팀을 향해 “고생이 많다. 수고했다”고 짧게 인사말을 건넸다.

원정투쟁팀은 애초 침묵시위를 벌이려고 했으니 피켓시위를 남의 화살



일처럼 대하는 박 사장의 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구호를 세번 당당히 외쳤다.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참석자들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박 사장은 원정투쟁단의 힘찬 구호에 움찔한 듯 슬쩍 뒤돌아보기도 했다.

원정투쟁팀의 선전전은 당일 행사 참석자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원정투쟁팀에게 다가와 “미안하네. 연합뉴스 지켜주지도 못하고”라고 격려했다. 민주당 합당 김영환 의원은 원정투쟁팀에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미안합니다. 우리는 행사하러 와서”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다른 참석자들은 원정투쟁팀이 든 피켓의 문구를 유심히 살피며 관심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피켓을 읽고서 “연합뉴스 사장이 이런 사람이었어? 몰랐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지나갔다. 행사 자원봉사자들도 “연합뉴스 파이팅!”을 외쳤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원정투쟁팀은 인근 회계의 한 식당에서 오징어삼겹살불고기를 먹으며 자축했다. 황성 한우를 기대했던 모 조합원은 “평창에 와서 먹어서 그런지 오삼불고기에서 한우 맛이 난다”며 위안을 삼기도 했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우승해 평창행 티켓을 거머쥔 ‘천재 물리학도’ 임화섭 조합원은 빗길 운전과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원정투쟁팀을 위해 자비로 산 박카스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며 원기를 북돋우는 세심함을 보였다. 임 조합원은 클래식 마니아답게 평창을 오가는 내내 동승한 조합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 투쟁의 품격을 한껏 높이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는?” “공정보도!”〉

연합오락관 행사에 조합원들 ‘웃음 만발’

하늘이 유달리 청명했던 26일 오전 본사 서관 8층은 조합원 100여명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열린 ‘연합 오락관’ 행사에서 조합원들은 3개조로 나뉘어 스피드 퀴즈, 손짓발짓 퀴즈, 초성퀴즈 등의 게임에서 ‘혈전’을 치르며 팀워크를 다졌다. 연합뉴스 파업을 주제로 출제된 퀴즈로 조합원들은 40여일간의 투쟁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스피드 퀴즈는 조별로 두명이 한팀을 이뤄 ‘분노하라 연합뉴스’, ‘조합원 총회’, ‘공정보도’ 등 투쟁을 소재로 한 키워드를 맞추는 방식으로진 행됐다.

1조 출전자로 나선 고동선 조합원은 ‘공정보도’를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조합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2조 송진원 조합원은 2010년 입사한 조합원들이 만든 파업 체조의 원곡 이름을 묻는 질문에 ‘아담의 경고’라는 기발한 대답을 내놓아 ‘빅재미’를 안겼다.

이어 진행된 손짓발짓 퀴즈는 몸동작만으로 동물이름을 설명하는 순서였다. 출전한 조합원들의 귀여운

몸짓설명에 폭소가 이어졌다.

때아닌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불상(사슴의 일종)’, ‘듀공(해양 포유동물)’ 등 난해한 동물 이름이 2조에 출제되는 바람에 1, 3조에 비해 지나치게 난도가 높은 것 아니냐는 2조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 이 때문에 사회를 맡은 홍제성 조직부장이 2조원들과 추가점수를 놓고 흥정하는 진풍경이 빚어졌다.

노조 사무실에 비치된 DVD 목록과 최근 개봉한 인기 한국영화 제목을 맞추는 영화 초성퀴즈 순서에서 서관 8층의 긴장(?)과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종합 순위는 오정훈 조합원이 OX 퀴즈에서 최후 생존자로 살아남은 덕분에 2조가 1위를 차지했다.

OX 퀴즈는 ‘연합뉴스 노조 조합원은 513명이다?’(답 O), ‘연합뉴스 노조 현 집행부는 24대다?’(답 X) 등 헛갈리는 문제로 조합원들을 고심하게 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노조에 대한 질문이 딱딱한 소재일 수 있는데 모두 의지를 불태우다 보니 의외로 많은 재미를 느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이너스 월급날, 십시일반 투쟁기금 쏟아져

파업으로 연합뉴스 직원들이 ‘마이너스’ 월급명세서를 받았지만 투쟁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월급날인 25일과 이튿날인 26일 노조로 투쟁기금 성금이 물밀듯이 들어온 것. 이틀간 성금이 430여만원에 달했다.

때아닌 투쟁기금 답지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정일용 국장의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국장은 ‘무노동무임금 보전 십시일반 모으기’란 글에서 마이너스 월급에 “영 맘이 편치 않다”고 하면서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마음’을 전달하면 어떨까요”라고 성금 기부를 제안했다.

이틀간 노조에 투쟁기금을 전달한 이들은 부장 이상 간부급 선배 등 24명이었다.

계좌번호	110-266-729***
설치금액	-431,575
기타수당4	
력단련비	
격려금	

40명이던 노조 ‘트친’, 파업 40일만에 6천명으로 “연합뉴스 힘내라”...응원 메시지 트위터서 넘실넘실

40여명에 불과했던 ‘연합뉴스노조(@yonhapnojo)’ 트위터 팔로워가 파업 40일을 넘자 6천여명으로 늘었다. 파업시작 이틀 만에 2천여명으로 늘더니 지금도 매일 200여명씩 꾸준히 연합뉴스와 ‘트친’을 맺고 있다.

소설가 공지영 씨, 고재열 시사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인 김미화 씨 등 파워 트리티리언의 리트윗(RT) 덕분에 팔로워 수가 급격히 불었다.

사실 파업 초기 트위터상 연합뉴스에 대한 여론은 좋지않았다. 연합뉴스가 파업하겠다고 하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이 다수였다. “연합 찌라시”가 이제와서..”라는 비난하거나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 시류에 편승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다.

하지만 노조가 진정성을 갖고 파업을 진행하자 팔로워 수가 늘고 노조를 응원하는 일대일 메시지(DM)와 멘션이 수시로 날아들게 됐다.

계정이 @alche1987인 이는 “대한민국 뉴스 프레임의 기본..연합. 이제 제자리에 서야죠”라며 “항상 응원합니다. 승리 후에 함께 비 맞은 시민들 잊지 마세요”라고 응원했다. @dauni11은 “길어져도 좋습니다. 권력의 주구가 아닌 참 언론이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전했다. 몇몇 트친은 파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투쟁기금을 보내오기도 했다.

노조 계정(@yonhapnojo)이 올리는 트윗은 하루 10개 내외. 주로 노조의 투쟁 상황을 외부로 전하는데 중점을 둔다. <파업 ○○일째>로 시작하는 트윗은 매일 열리는 집회와 파업프로그램을 영상, 사진 등을 곁들여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트위터는 ‘얼굴없는 통신기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이 되기도 한다.

싱어송라이터 이상현, 연합 대표 ‘얼짱(?)’ 김동규, ‘열성분자’ 성의경·송진원, 보급대장 이용석, 마스크트 권영전, 이전 경찰기자 4대 꽃미남 정성호, ‘노총각 영화담당 기자’ 송광호, 집회 ‘프로그래머’ 김경희, 노조의 ‘괴벨스’ 강훈상 조합원 등이 노조계정 트윗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데뷔했다.

1년여 전 개설된 당시 노조 계정은 다소 폐쇄적이었다. 조합원에 한해 팔로우를 허용하고, 주된 소식은 사내인사와 보도채널 관련 사항 등이었다.

지금은 노조 SNS팀이 계정 운영을 전담한다. 정치부 이광빈·이유미, 경제부 고은지, 미디어과학부 권영전, 퍼스널미디어팀 박자연, 영문뉴스부 김은정 조합원 등이 팀원이다.

노조 SNS 팀은 파업의 명분을 알리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작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파업하고 있습니다. 공정 보도하러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 사과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RT도 이런 노조의 뜻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노조 트윗을 많이 RT하는 ‘열성 트리티리언’으로는 국제부 김윤구, 문화부 한미희·임미나, 경기북부취재본부 임병식, 정치부 강영두, 연합뉴스TV 파견 장동우·김혜영 조합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도 노조 계정을 팔로잉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다면 노조 트친이 돼자. 트위터할 줄 모른다면 파업기간에 동료 조합원에게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이광빈 조합원은 “기자 개인의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기가 중요한 SNS 시대에 파업 여론전도 펼쳐고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 홍보에도 적극”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트친’들이 전하는 응원메시지.
▲ 투명한 언론을 위해 희생하시는 많은 분들 보면서 예비언론인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하셔서 공정언론 되찾아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고등학생 때 장래희망이 연합뉴스 특파원이었습니다. ‘신문사들의 신문사’라는 문구를 아직 기억합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그 중책을 잘해낼 수 있는..연합뉴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 사실 그동안 님들 무지하게 욕했더랍니다. 어디 님들 도와줄 게 없어서 쥐새끼 똥고를... 하지만 님들도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게 이제야 분출된 걸로 생각하면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꼭 이기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전쟁비용 쓸 준비 완료돼있어욤!!

▲ ‘언론바로세우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언론인여러분 모두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꼭 99%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 날카롭고 살아있는 말과 글 그리고 정보, 자유로우나 결코 가볍지 않은 연합뉴스를 기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 가슴 먹먹한 시간 속에 웬지 미안하고 감사하지만, 당신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언제나 마음 가득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건승하세요!

파업투쟁 숨은 일꾼

① ‘투쟁의 소리를 책임진다’ 박지호 조합원

※ 40여일 넘은 파업투쟁 기간 일반 조합원이면서도 노조 투쟁활동에 묵묵히 힘을 보탠 이들이 많다. 이들의 열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노보에서 이들의 활약상을 전한다.



박지호(사진부) 조합원은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이번 투쟁을 시작한 이래 줄곧 조합원들의 ‘소리’를 책임져 온 주인공이다.

공덕동 뉴스통신진흥회, 본사 앞 한빛공원, 종각 등 각종 옥외 집회에서 공정보도의 의지를 다져 온 연합뉴스의 목소리는 박 조합원이 관리하는 장비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지금도 집회가 열릴 때면 무대 뒤에서 노트북을 열어 놓고 음향을 조절하는 박 조합원의 모습을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다.

기동 크기의 무거운 스피커를 노조 사무실에서 옮겨다가 설치하고, 집회가 끝나고서 다시 분해해서 정리하는 모든 작업이 박 조합원의 ‘지휘’아래 이루어진다.

투쟁 초기에는 박 조합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른 이들이 음향 장비를 설치하지 못해 난감해질 만큼 커다란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다.

3년차 조합원들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사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용감한 연합뉴스’ 뮤직비디오 제작에 박 조합원은 오디오 감독으로 큰 힘을 보탤다.

지난 18일 한빛공원에서 열린 ‘연합뉴스 파업 한달 콘서트’ 때에는 아예 음향 감독으로 나서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갈고 닦은 전문성을 빛냈다. 또 이날 민중가요 노래패 ‘꽃다지’의 출연을 섭외하는 등 공연 구석구석 박 조합원의 손길이 미쳤다.

박 조합원이 중책을 맡아 준 덕분에 노조는 콘서트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고 한다.

박 조합원은 항상 그늘 속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이 40일을 넘기면서 박 조합원은 ‘공평동 호평이’라는 별명과 함께 노조의 ‘스타 가수’로 떠올랐다.

파업 한달 콘서트에서 사회부 이상현 조합원과 짝을 이뤄 등장한 그는 빼어난 노래 실력으로 조합원들과 시민

의 귀를 사로잡았다.

앞서 박 조합원은 파업 직전 종각 앞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 때에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자랑한 바 있다. 당시 그가 반주에 맞춰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자 조합원들은 “진짜 안치환 노래인 줄 알았다”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나 박 조합원은 “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그냥 자원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으로 파업 한달 콘서트를 꼽았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공연 당일엔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공연을 준비했지만 몇 차례 음향 사고가 나는 등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고 한다.

박 조합원은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더욱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